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18일 울산문수수영장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400m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박태환이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자유형 400m 아시아新

3분43초59…1년만에 경신
해켓 이어 올 세계 2위 기록

■ 동아수영 남자 대학부 결승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자신의 자유형 400m 아시아신기록을 1년여만에 갈아치웠다.

박태환은 18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 제80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400m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3분43초59에 터치패드를 두드리며 우승했다.

작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분44초30로 아시아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던 박태환은 이로써 1년여 만에 자신의 기록을 0.71초 단축했다. 이 종목 세계 기록은 은퇴한 '인간어뢰' 이안 소프(호주)가 2002년에 세운 3분40초08이다.

올해 랭킹으로 보면 최대 라이벌인 그랜트 해켓(호주)이 지난달 호주대표선발전에서 세운 3분43초15에 이어 두번째로 좋은 기록이다. 3위는 에릭 벤트(3분44초56·미국)이고 장린(3분45초04.중국), 유리 프릴루코프(3분45초10·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다.

작년 세계 대회 이후 자신의 기록 단축에 번번이 실패해 우려를 자아냈던 박태환은 이로써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메달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신수영복에 아직 적응이 안됐는지 스피도가 새로 개발한 '레이저 레이서(LZR Racer)' 원단으로 만든 검은색 반신수영복을 입고 4레인 출발대 위에 선 박태환은 0.66초의 가장 빠른 스타트 반응을 보이며 힘차게 물속에 뛰어들었다.

초반부터 스피드를 내기 시작한 박태환은 초반 50m에서 26초18을 찍으며 힘차게 턴을 했고, 2위인 5레인의 신인철(한국체대)을 사람 키 하나 이상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굳혔다.

100m 턴 지점에서 작년 세계 대회 때 기록인 55초00보다 0.8초 앞선 54초20을 찍은 박태환은 새로운 아시아 기록 달성을 예고했다.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구력이 완벽히 다듬어지지 않은 박태환은 200m 턴 이후 스피드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 예견됐지만 섣부른 판단이었다. 200m 지점에서 1분51초43으로 세계 대회 때 1분52초87보다 1초 이상 앞선 박태환은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고 팔을 휘젓고 발을 구르며 힘차게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연합뉴스

자유형 400m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박태환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세계신기록 도전
새 수영복 아직 적응 못해"

■ 박태환 인터뷰

1년여 만에 자신의 자유형 400m 아시아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008 베이징올림픽 메달 전선에 청신호를 켠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다음 목표를 세계 기록으로 잡았다.

박태환은 18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0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400m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3분43초59로 1년여 만에 새로운 아시아 기록을 수립한 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목표로 삼고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종목 세계 기록은 2002년 이안 소프(호주)가 세운 3분40초08. 이에 근접하려면 3초 이상을 줄여야 하지만 박태환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태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기록이 나오던 안 나오던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록을 못 내는 동안 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기사나 분석이 많았다. 굉장히 냉정하더라.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가서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록을 깨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태릉선수촌에 다시 들어가면 여유를 갖고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분40초대 진입을 목표로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 더 좋은 성적 내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록 단축 비결을 묻자 박태환은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노민상 감독님이 잘 가르쳐주셨고 함께 훈련한 배준모, 피승엽 등 선후배와 동료들이 격려를 해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최근 세계신기록을 봇물 터지듯 쏟아낸 스피도의 새 수영복 '레이저 레이서' 전신수영복 착용에 대해서는 "동양 선수가 전신수영복을 입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 나도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 내일 모레 열리는 자유형 200m에서 입을지 안 입을지 확실히 결정을 못했지만 입고 뛸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또 "선수촌에서 새 전신수영복을 입고 훈련을 많이 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된다. 올림픽에서는 수영복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입겠다"고 했다.

최경주 8언더 단독 선두

KPGA SK텔레콤 오픈 2R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에 출전한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18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7천275야드)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데일리베스트인 8언더파 64타를 뿜어내 단독 선두(9언더파 135타)로 뛰어 올랐다.

2003년과 2005년 두차례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최경주는 3년만에 대회 통산 세번째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1라운드 후반부터 아이언샷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기에 오늘은 3~5m 버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던 최경주의 예상은 그대로 현실이 됐다.

2번홀(파4)에서 5m 버디 기회를 맞은 최경주는 어김없이 퍼트를 성공시켰고 파를 지켜도 만족한다는 3번홀(파3·250야드)에서 3번 아이언으로 홀 2m 옆에 볼을 떨어뜨려 버디를 잡아냈다.

4번홀(파5)에서는 뒷바람을 탄 티샷이 320야드나 날아갔고 5번 우드로 친 두번째 샷은 5m 이글 기회로 이어졌다. 역시 아침에 집중적으로 연습한 거리의 퍼팅이었고 최경주는 볼이 홀에 빨려 들어가자 오른 주먹을 불끈 쥐었다.

5번홀(파4)과 6번홀(파4)에서 잇따라 1m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최경주는 "다섯 홀에서 연속 언더파 스코어를 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8번홀(파3)에서 6m 거리의 버디 퍼트가 빨려 들어가면서 한국프로골프 9홀 최소타 기록(28타)까지 욕심내던 최경주는 무난히 버디를 잡아낼 것으로 여겼던 9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이 그린 앞 연못에 빠지면서 1타를 잃었다.

하지만 10번홀(파4)에서 4m 버디를 뽑아내며 분위기를 추스린 최경주는 16번홀(파5)에서 피칭웨지로 낮게 깔아쳐 그린에 올라가자마자 멈춰서는 환상적인 어프로치샷을 선보이며 버디를 보탰다.

최경주는 "어차피 그린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7천2750야드)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라운드 경기에서 최경주(나이키골프)가 9번홀 그린에서 경사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6언더 "나도 선두"

KLPGA 레이디스챔피언십 1R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2008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챔피언십 단독 선두로 나섰다.

신지애는 18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골프장(파72.6천320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4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6언더파 66타를 쳤다. 보통 대회 중반부터 힘을 내는 신지애였지만 첫날부터 5언더파 67타를 친 작년 신인왕 김하늘(20.코오롱)을 1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1위에 올랐다. 안선주(21·하이마트) 등 3명이 3언더파 69타로 공동 3위에 올라 선두를 추격했다.

올 시즌 상금왕 3연패에 도전하는 신지애는 해외원정에 따른 피로가 쌓여 지난 주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여자오픈에서는 톱 10에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시차적응을 완전히 끝낸 신지애는 전반에 2타를 줄인 뒤 12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순항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선두자리를 놓고 김하늘과 안선주가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신지애는 15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지는 위기를 맞았으나 그림같은 벙커샷을 성공시켜 순식간에 2타를 줄였다.

16번홀(파4)에서도 5m짜리 퍼트를 집어넣어 1타를 줄인 신지애는 마지막 홀(파3)에서도 티샷을 홀 옆 3m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노렸으나 아쉽게 파에 그쳤다.

지난 주 대회에서 우승하며 신인 돌풍을 일으켰던 유소연(18·하이마트)은 신지애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쳤지만 1오버파 73타로 공동 28위까지 밀렸다.

앤서니 김 4언더 4위 '순조로운 출발'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1R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에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앤서니 김은 18일(한국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의 하버타운 골프장(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4위에 올랐다.

저스틴 레너드와 데이비스 러브 3세, 루카스 글로버(이상 미국)가 5언더파 66타를 때려 공동 선두가 됐다. 300야드에 육박한 앤서니 김의 드라이브샷은 79%의 페어웨이 안착률을 기록했고 아이언샷이 다소 흔들렸지만 퍼트 수를 25개로 줄여 상위권에 오를 수 있다. 전반에만 4타를 줄인 앤서니 김은 11번홀(파4)에서 유일한 보기를 했지만 18번홀(파4)에서 두 번 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8.5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 넣어 첫 날을 기분좋게 마쳤다.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이븐파 71타, 공동 59위로 밀렸고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9오버파 80타를 친 뒤 기권했다. 상위 랭커 중 짐 퓨릭(미국)이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14위, 세계랭킹 3위 어니 엘스(남아공)는 1오버파 72타, 공동 73위로 첫날을 끝냈다.

"박지성, 유럽서 뛰고 있는 아시아 최고 선수" AP통신

AP통신이 1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을 서울발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소속인 미드필더 박지성(27)을 높게 평가했다.

이 통신은 "박지성이 2005년 7월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맨유로 팀을 옮길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려한 '이적 실패론'은 빗나갔다"고 전하면서 "박지성은 두 차례 장기간 부상으로 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올 시즌 중요한 시기에 맨유 선발로 꾸준히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성이 최근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S로마(이탈리아)와 8강 1, 2차전에 모두 출전해 팀의 4강 진출에 기여했고 지난 14일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전에서도 활약을 펼친 데 따른 분석이다.

특히 박지성이 이번 시즌 선발 출격한 10경기에서 팀이 전승을 거둬 '박지성 선발 출전 =맨유 승리'라는 공식이 생겼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도 스피드가 떨어진 노장 라이언 긱스보다 박지성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박지성은 공격은 물론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반면 박지성의 동료인 이영표(토트넘)와 설기현(풀럼), 이동국(미들즈브러) 세 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좀처럼 출장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고 올 여름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고 이 통신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상담문의 (062)351-0095